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33〉

since 1952

〈5부〉 '귀농' 꿈을 이룬 사람들

⑧ 배농사 정순표·장춘숙 부부

"자식 농사 끝내놓고 진짜 농사에 푹 빠졌어요"

지난 2006년 강진군 작천면으로 귀농해 배농사를 짓고 있는 정순표·장춘숙 부부. 지난달 28일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며 수확을 앞둔 60~70%의 배가 낙과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강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자녀 취직후 꿈에 그리던 귀농 실천

7000여평 농원 인수해 배·콩 농사

배·자연 된장 등 판매…5천만원 수입

"청정지역서 건강 찾고 마음 풍요로워"

"몸 편하려면 귀농하지 마세요. 시골사람보다 몇 배 더 고생해야 합니다. 시골생활은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정순표(56)·장춘숙(52) 부부는 지난달 28일 귀농 이후 가장 큰 아픔을 맛봤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BOLAVEN=라오스 고원 이름)이 지나가며 수확을 앞둔 배가 우수수 떨어진 것. 60~70%가 낙과됐고, 달려있는 배 역시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며 스트레스를 받아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그나마 앞산이 바람을 가려줘 피해규모가 다소 줄었다.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정씨는 태풍 '볼라벤'이 상륙해 큰 피해를 끼친 당일 새벽 6시에 자신의 과수원을 돌보는 대신 21호가 살고 있는 마을의 피해상황을 살피기 위해 달려나가야 했다.

◇지천명(知天命)에 귀농 결심= 정씨 부부는 올해로 귀농한 지 꼬박 6년째이다. 광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정씨는 지천명(知天命)이던 지난 2006년 10월에 잘나가던 사업을 접고 '인생 2모작'의 주사위를 던졌다. 슬하의 딸 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을 계기로 오랫동안 맘속에 품어오던 귀농을 실천했다. 항시 시골을 그리워하고, 농사짓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 초기부터 '교육 끝나면 내려간다'고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왔던 터라 장애는 없었다. 이후 도내에서 귀농지역을 물색하다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에 위치한 부지 7000여평 규모의 배 농원을 인수해 새로운 인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강진 군동면이 고향인 부인 장씨는 "친정어머니 생신인 4월에 만개한 작천 벚꽃길을 거쳐 친정을 오가며 '참 좋다' 생각했는데 우연하게도 이곳에 정착하게 돼 '연(緣)'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사때 시장에서 배만 사봤지 배나무의 '배'도 모른 상태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다. 6년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는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강진에 정착한 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와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과수반 교육에 참여해 부지런히 관련 기술을 익히고, 선진농가를 찾아다녔다. 묵은 가지에서 열린 배는 맛이 없기 때문에 2~3년 쓰고 새가지에 열매가 열리게끔 해야 한다.

정씨 부부는 초기에 배 농사를 3000여평 짓다가 인건비가 비싸 2000여평으로 줄였다. 2009년에는 한우 암소를 1마리 사 시나브로 8마리로 늘리기도 했으나 소값이 떨어져 지난해 말 모두 팔았다.

정씨 부부는 수확한 배를 공판장에 내는 대신 90%가량을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비상품과는 수세미·생강·도라지를 가미한 배즙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총수익은 5000여만원.

올해는 태풍으로 낙과가 심해 수거한 100여 상자의 낙과 배와 조생종 배를 혼합해 배즙을 만들 계획이다. 제대로 수확한 조생종 배를 섞는 까닭은 아직 낙과 배가 제대로 익지 않아 맛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속 계속되는 귀거래사= 부인 장씨는 지난해부터 집앞 1200평 밭에 콩을 심어 옛날 방식 그대로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담근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지난 7일에도 마을 할머니 2명과 함께 잡초가 무성한 콩밭에서 김을 매고 있었다.

"도시에서 살다 보니 도시 사람 입맛을 맞출 줄 알고, 인근에서 떠온 약수덕분에 된장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서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들어왔는데 좋지 않은 된장을 팔기는 싫습니다."

정씨는 "친구들은 '인생항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시골생활이) 힘들다"면서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8일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박스접기 등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부인 장씨 역시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이유없이 눈이 안 보이곤 했는데 지금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머리는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우선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내려오지 말고 준비기간 많이 갖고, 충분한 조언 들어라 ▲자기에 맞는 품목(작물)을 선택하라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라 ▲자부담 많은 초기 투자를 줄여라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귀농해 농촌에서 혼자 살다 보면 생활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정씨 부부는 앞으로 펜션식 집을 꾸민 후 도시인들이 쉬었다 가고, 몸 불편한 이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채소 등을 가꾸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정씨 부부가 사는 황토집 주변은 맑은 물과 가재를 비롯해 반딧불이·장수 풍뎅이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청정지역'이다.

'쪼깐이'와 '토끼'라고 이름붙인 개, 고양이와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는 정씨 부부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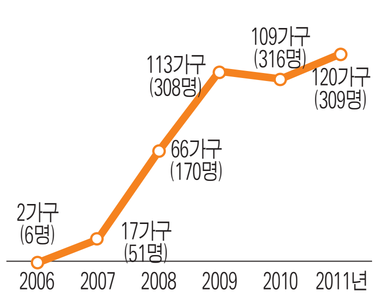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강진 귀농정책

전국 첫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정착금 2천만원·실습비 등 지원

■강진군 귀농인 연도별 현황



강진군은 지난 2007년 5월 농촌인구 증가와 젊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36가구(373명)이 강진으로 귀농했으며 ▲2010년 109가구(316명) ▲2011년 120가구(309명)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착 보조금 역시 ▲2008년 2억9450만원(10가구) ▲2009년 7억6000만원(27가구) ▲2010년 8억5000만원(31가구) ▲2011년 19억원(74가구)으로 늘었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귀농정책을 세우고 2008년 예산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귀농자금을 지원했다.

강진군이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잘 갖춰진 귀농지원 정책과 넓은 농토, 저렴한 땅값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의 최적지로 꼽혔다. 대표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는 농촌 빈집 수리비 지원 500만원과 영농정착 지원사업 2000만원, 농장체험 실습비 월 30만원 등 직접적인 귀농자금 지원과 귀농 초기 부족한 정보를 해소하는 기초농업 및 특수작목 야간교육 등이 있다. 군은 지난 2010년까지 귀농 가구당 30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11년부터 귀농조례를 개정,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진군 귀농정착 지원책은 크게 ▲정착금(사업비)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영농 현장체험 및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정착금(사업비) 지원대상은 세대주 전입후 5개월부터 18개월 이내 귀농자이다. 지원사업비(보조) 2000만원 이내로 신청가능 하며, 반드시 자부담 50%를 병행 추진해야한다.

단, 사업비 신청시 고교 재학생 이하 전 가족이 전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목적고 기타 전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비 신청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설계도, 견적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축사신축 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가주택 수리비는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빈집을 수리해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부모주택으로 전입할 경우 상속·양도시 본인이 세대주가 될 경우나 주택건축, 읍내 상가권 지역에 임대나 구입을 했을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문의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담당(061-430-3641)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후원